

가든스테이트라는 닉네임에 부응하는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을 향해 뉴저지주의 턴파이크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뉴저지가 왜 가든 스테이트 (Garden State)라고 불리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날 뉴저지주는 미국내 50 개의 주(State)중에서 크기는 46 위 거주 인구는 11 위에 올라있다.

덧붙여 “Garden State”라는 닉네임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4 년 뉴저지 법원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 이후에 자동차 번호판에 “Garden State”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다.



[뉴저지의 자동차 번호판 예]

농업 지역의 대부분은 남부 뉴저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뉴저지를 가로지르는 턴파이크 하이웨이를 따라 많은 농장들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뉴저지의 음식 및 농업 경제 규모는 1,000 억불 정도로 뉴저지 경제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뉴저지는 4 월부터 10 월까지 끊임없이 신선한 농작물을 공급 할 수 있다. 봄에는 아르굴라, 아스파라거스, 파슬리와 같은 녹색 채소를 공급하고 여름에는 모든 야채 중에 빅 3 라고 불리는 옥수수, 블루 베리, 토마토를 공급한다. 가을에는 호박같은 작물과 봄에 공급했던 녹색 채소류를 재공급한다.

뉴저지의 농업을 발전 시키는 요소들

뉴저지의 날씨와 비옥한 토양은 농업의 기틀을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는 뉴저지와 뉴욕의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신선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2012 년 4 월 "New Jersey Fact Sheet"에 따르면 뉴저지가 보유하고 있는 10,327 개의 농장은 뉴저지의 전체 면적 15.6%를 차지하며 2008 년도에는 11 억 불의 매출을 올릴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 최근 뉴저지에서는 큰 규모의 농장 보다는 작은 가족 단위의 농장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적게는 1 에이커부터 2,000 에이커 이상의 농장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71 에이커 규모이다.

또한 대부분의 농장들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500 에이커의 셰퍼드팜(Sheppard farms)을 운영하고 있는 Thomas Sheppard 는 자신의 농장은 1683 년에 처음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12 대째 지속해오고 있다.

"Procacci Bros Sales Corp."의 CEO Josep Procacci 는 기후야말로 뉴저지의 토마토를 유명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여름밤의 온도는 화씨 60 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낮 동안은 따뜻하다. 여기에 충분한 비와 햇빛을 받은 뉴저지의 토마토는 잘 익은 고유의 맛을 지닌다.

또한 뉴저지의 겨울철 날씨는 질 좋은 복숭아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기 적합한 차가운 온도의 기후를 적당히 유지하는 날씨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뉴저지의 농장들은 총 세지역의 주요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첫번째는 2 천 5 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뉴저지, 뉴욕,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장이다. 두번째는 보스턴, 뉴잉글랜드 시장이며 세번째는 캐나다 동부 시장이다. 뉴저지의 농작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수시간 안에 해당 시장으로 배송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신선한 농작물의 천국

100 가지 이상의 과일과 야채가 뉴저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뉴저지의 농업 생산은 플로리다, 조지아, 캐롤라이나와 같은 남부주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주들은 블루베리, 크랜베리, 복숭아, 토마토, 고추, 오이 등의 농산물 생산량이 미국내 탑 10 위에 랭크되어 있는 주들이다.

뉴저지 소규모 농장들은 인근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빠른 시일내에 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작은 농장들은 뉴저지의 Vineland 지역의(남부 뉴저지) 경매를 통해 제품들을 보다 쉽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매 형태는 130 스퀘어 피트 넓이의 크로스 도킹 시스템을 제공하고 농장과 브로커, 유통 관계자들에게 냉동포장, 진공포장 등의 시스템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이 경매는 4 월 부터 11 월 까지 주 6 일 열리고 있다. 뉴저지에서 재배된 농작물들은 원스탑으로 대형 유통 센터는 물론 그로서리마켓 바이어에게까지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 체인망을 갖고 있다. 인접한 자리에 거대한 시장이 자리하다보니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에 좋은 조건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세 지역 거대한 시장의 유통 바이어 들은 많은 물량을 선점하기위해 앞다퉈 농장을 방문 할 정도의 수요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포장된 패키지로 재배되는 상추같은 채소들로 인해 식품 안전 부분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장된 상추는 배송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법 개발에 전폭적인 연구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아스파라거스는 봄철에 재배되는 뉴저지에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는 3 월 말부터 재배가 시작되며 뉴저지에는 30,000 에이커의 넓이의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다. 6 년전부터는 렛거스 대학의 연구진들이 다양한 하이브리드 재배 농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약 2,000 에이커의 농장에서 신 농법을 통하여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고 있다.

신선한 맛과 크기를 갖고 있는 블루베리는 뉴저지에서 가장 많이 재배 되는 작물 중 하나이다. 6 월 중순부터 7 월 초까지가 가장 많은 블루베리가 재배되는 시기이며 블루베리 농장들은 주말과 같이 판매량이 늘어날 때에는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뉴저지의 블루 베리 농장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부 복숭아 농장은 블루베리 재배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토마토는 6 월 말부터 노동절(9 월 첫째주 월요일)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을 수확 한다. 올 봄 "Procacci"는 "Golden Grape Tomato"(금빛 방울 토마토)의 새로운 상표로 등록했다. 이 제품은 기존의 방울 토마토의 유통기한 보다 선도유지 기간이 길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 10 월 태양열로 2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여 운영 가능한 10 에이커 크기의 농장이 문을 열었다. 11,000 개의 광전 패널과 냉장 패킹 시스템, 관개시설같이 갖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농장이다. 이 농장은 뉴저지 내에서 가장 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농장이며 향후 새로운 대체 에너지 설비는 토마토 생산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New jersey Fact Sheet"에 따르면 2008 년 67 개의 공인된 유기농 업체가 유기농 과일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다. 뉴저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블루베리는 "Whole

Food”, “Trader’s Joe”, “Wegmans”와 같은 유통 업체의 수요에 즉시 배송되고 있다.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먼저 파악하여 그 수요를 농장에 전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대형유통채널이 뉴저지 인근 시장에 거대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는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주 중 하나이다. 뉴저지 인구중 17.5%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로 인해 이국적인 농작물 생산량 또한 많다. 멕시코 고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채소들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 시장의 급 성장으로 농장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재배 작물의 다양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1 년 뉴저지 농작물 판매및 생산 순위]

순위	금액		생산량	
	품목	백만 \$	품목	백만파운드
1	피망	103.7	블루베리	62.0
2	블루베리	94.7	복숭아	60.0
3	토마토	60.9	크랜베리	51.0
4	옥수수	59.5	토마토	31.5
5	양배추	52.5	피망	30.4
6	오이	49.6	옥수수	15.8
7	복숭아	36.6	오이	15.5
8	호박	30.6	허브류	15.0
9	상추	27.8	호박	12.7
10	크랜베리	26.3	상추	11.7



[출처 : US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신선한 제품을 위한 마케팅 지원

뉴저지는 과일과 야채의 제품 등급제를 실시한 첫번째 주이다. 유통업계는 여름 철에는 농작물의 판매가 크게 줄어드는것은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소비자들은 뉴저지 도처에 있는 농장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하고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프로그램은 매장안의 제품들이 신선정도를 고객들에게 알려 줄 수 있게 되었다. 유통 업계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저지 농무부의 'Jersey Fresh' 로고를 가격표, 배너, 스티커 등에 활용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뉴저지는 각종 미디어와 언론 매체에도 뉴저지 생산제품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뉴저지 농무부는 내년 기대치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예측하고 매년 자체 피드백을 통해 농장들과 공유하며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농장들은 유통 업계에 적정한 시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농장들은 유통업계와 돈독하게 협력하여 특별한 프로모션 또한 계획한다. 유통 매장에 식품을 재배한 농부의 사진을 전시하여 제품의 신뢰감을 높이는 활동 또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유통업계와 농장들은 새로운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선호하는 매대에 정확히 진열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